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6. 30(목)	
		작 성 문 의	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관 김창식 사무관 하지영 (Tel. 044-200-2135)
* 즉시 사용			

## 황교안 총리, 리시 라오닝성 당서기 접견

- 한·라오닝성간 우호협력 증진 및 실질협력 강화 합의
  -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라오닝성 차원의 단속 및 어민 제도 강화 당부
  -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 문제 관련 한·라오닝성간 협력 강화
  -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라오닝성내 우리 교민들의 권익 보호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
- 중국을 방문중(6.26-30)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6.30(목) 우리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반도와 가장 인접한 중국 동북3성(라오닝성·지린성·헤이룽장성) 지역의 중심지인 라오닝성 선양을 방문, 리시(Li Xi, 李希) 라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·라오닝성간 우호협력 증진 및 경제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- 황 총리는 한·중 관계가 92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, 금번 방문을 계기로 한·중 관계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한국과 지리·문화·정서적인 면에서 유대가 깊은 라오닝성 및 동북3성과의 관계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.
- 이에 대해, 리 서기는 수교 이래 한국 최고위급으로서 황 총리의 선양 방문을 환영하며, 이번 방문을 통해 한·라오닝성간 교류 증진 및 기업

진출 등 실질협력 확대, 문화·관광 분야 협력 증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.

- 황 총리와 리 서기는 작년말 한·중 FTA 발효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-일대일로 등 양국 발전전략간 연계 협력이 한·랴오닝성간 협력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.
- 아울러, 황 총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하여 랴오닝성 차원에서도 단속 및 어민 제도·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, 리 서기는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랴오닝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하고,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.
- 황 총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랴오닝성 정부도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, 리 서기는 랴오닝성 정부로서도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하였다.
- 황 총리는 다렌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 유해의 조속한 발굴을 위해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랴오닝성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, 선양 한국 국제학교 건물 이전 등 교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였으며, 리 서기는 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토록 지시하겠다고 하였다.